

경선등록 첫날부터 광주로 달려온 후보들 뜨거운 ‘호남 구애’



안철수 후보.



천정배 후보



정동영 후보

천정배 “방화범이 그 불 끄려 나오겠다니 당 신뢰마저 위기”

안철수 “집에 불이 났는데 불끄는데 힘 보태야 하지 않겠나”

당권 주자들 광주에서 설전

국민의당 당권 주자인 천정배 전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가 10일 광주를 찾아 호남 구애를 벌이며 맞붙었다.

천정배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전 대표를 향해 “당을 위기에 몰아넣은 일종의 방화범인데 그 불을 끄려 나오겠다고 하니 당의 신뢰마저도 잃게 만드는 위기로 내몰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성찰과 자숙의 시간을 가져야 할 후보가 책임을 지기는커녕 또 당 대표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것은 당을 소멸의 위기로 모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천 전 대표는 안 후보의 출마 배경에 대해서도 “자와 같은 호남 안분로는 앞으로 당을 살릴 수 없다는 인식이 안 후보에게 있는 것 같다”면서 “이것이 탈호남 노선으로 호남과 거리를 두겠다는 것인지 토론회 등에서 확실하게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호남 지지율 회복을 시작으로 전국정당으로 나가겠다”고 밝혔다.

천 전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는 국민의당과 다당제가 존립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갈림길”이라며 “당 대표가 되면 선거기획단을 발족, 당 안팎의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해 지방선거에

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안 전 대표도 이날 오후 천 전 대표와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당을 살리고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리더가 필요하다”고 자신의 당 대표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대결할 때 ‘정동영 대 추미애’ ‘천정배 대 추미애’ ‘안철수 대 추미애’, 과연 어떤 구도가 한 명이라도 많은 기초의원을 당선시킬지 그 기준 하에서 생각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위기 상황이 아니면 제가 나올 결심을 하지 못했을 것 같다”면서 “그러나 너무나 엄중한 상황에서 당이 소멸되면 다시는 이런 좋은 3당체제, 다당제를 지킬 수 없을 것이라는 걱정 때문에 나오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 대표 선거 경쟁자인 천정배 전 대표가 안 전 대표를 향해 “방화범이 그 불을 끄려 나오겠다고 한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안 전 대표는 “집에 불이 났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불끄는 데 힘을 보태야 하지 않겠나”라고 맞받았다.

또한, 천 전 대표가 주장한 ‘탈(脫) 호남’ 주장에 대해 “탈(脫)호남 주장은 당을 분열시키려는 정치적 책동”이라며 “국민의당은 호남에서 만들어 주고, 전국정당으로 커 나가라고 밀어준 곳 역시 호남이다”면서 강력히 비판했다.

최권일·오광욱기자 cki@kwangju.co.kr

국민의당 당대표 경선 안철수·천정배·정동영 ‘3파전’ 출발

안철수·정동영 등록, 천정배 오늘 등록 ... 김한길 불출마

안 “극중주의”, 천·정 “개혁야당” ... 노선 논쟁도 치열

국민의당 8·27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 레이스가 안철수 전 대표와 천정배 전 대표, 정동영 의원의 3파전으로 출발했다.

안 전 대표와 정 의원은 경선 후보자 등록 첫날인 10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입후보를 마쳤다. 천 전 대표는 마감일인 11일 오전 직접 후보 등록할 예정이다. 출마를 저울질했던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이번 전대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당권 주자들은 이날 국민의당의 최대 지역적 기반인 호남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일제히 호남 구애에 나섰다.

안 전 대표는 후보 등록 후 첫 일정으로 광주에 내려가 당원 간담회, 시·구의원 토론회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광주로 출발하기 전 안 전 대표는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누가 개혁을 하고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판단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천 전 대표는 앞서 전남과 전북지역을 각각 2박3일씩 순회하며 당원들을 만난데 이어, 이날은 지역구인 광주로 내려가 안 전 대표와 맞붙었다. 천 전 대표는 11일 후보 등록 후 국립서울현충원에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한 뒤 다시 광주로 내려갈 계획이다.

전북 전주 지역구인 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혁을 주도하자’를 주제로 열린 대담 행사에 참여해 혁신 비전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정 의원은 “정동영 이름에 동쪽 동, 해염철 영이 있다”며 “동쪽으로 가야 한다. 광주가 해가 뜨는 곳

향 ‘빛고을’ 아닌가”라고 말했다.

경선 초반전에는 각 후보의 노선이 쟁점이 되는 분위기다. 안 전 대표는 중도주의를 극대화한 ‘극중(極中)노선’을 표방하고 있다. “좌우 이념에 경도되지 않고 중도노선을 행동에 옮기는 것”을 강조하며 자신의 정치적 존립기반인 제3세력을 지켜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천 전 대표와 정 의원은 안 전 대표의 극중주의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천 전 대표는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확고한 개혁’을 내걸었다. 그러면서 천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그때 그때 달라요, 샌더스를 말하다 마크롱을 내세우고, 햇볕정책 양비론을 말하다 김대중 노선을 주장하니... 좌중우돌하는 안 후보의 본심은 무엇입니까’라고 적었다. 또 기자회견에서도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도전락으로는 공감을 얻을 수 없다. 쫓발혁명이 요구하는 시대정신인 개혁적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안 전 대표의 노선을 정면 비판했다.

정 의원은 ‘선명한 개혁 야당’을 제시했다. “개혁과제에 우선순위를 부여해 끌고 가면 2중대가 아니라 주도자가 될 수 있다”며 주도권을 쥐는 대안정당으로서의 입지를 살려가겠다는 것이다. 또 이날 대담 행사에서는 “어정쩡한 중간은 기회주의적”이라며 과거 신민당 사례를 들어 안 전 대표의 ‘극중주의’를 비판했다. 이 같은 노선 논쟁의 이면에는 ‘중도 제3세력 형성’을 위한 바른정당과의 연대에 방점을 들지, 개혁노선을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과의 거리를 좁힐지에 대한 입장차도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문대통령 “어르신들 기초연금 월 30만원으로 인상”

“건보 보장성 강화 재정 감당 충분”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전날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관련, “건전 재정을 유지하면서 감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새 정부의 복지확대 정책에 대해 세금 폭탄이나 건보료 폭탄 등 막대한 재정적자 없이 가능할 것인가 궁금해 하는 국민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기획재정부와 충분히 협의해 재원대책을 꼼꼼히 검토했고, 올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설계해 현실적으로 건전 재정을 유지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최선으로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날 미용·성형을 제외한 전 의료 분야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획기적인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향후 5년간 30조 6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정부의 재정대책이 불충분하다며 결국 국민이 세금 및 건보료 폭탄에 직면할



문재인 대통령

것이라는 우려를 내놨다.

다만 문 대통령은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소중한 국민 세금과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게 부정수급 방지 등 복지 전달체계를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어르신들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법률 개정도 곧 착수할 예정”이라며 “노인의 빈곤·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압도적으로 1위인데, 독거노인을 비롯한 빈곤층이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시대도 이제 끝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복지는 성장 전략의 하나이기도 하다. 안전·생명·복지·의료·보육 등 복지확대가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게 연계 방안을 강구해주시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좋은 것을 넘어 위대함으로
GOOD TO GREAT

SAFETY No.1

안전한 SUV를 넘어 완전한 G4 REXTON으로



WINNER
G4 REXTON



WINNER
G4 REXTON

No.1 세계최초 14700Mpa급 초고장력 강판 적용

No.1 보험개발원 저속충돌시험 국내 중대형 SUV중 1위

No.1 2017 대한민국 신뢰받는 품질혁신 대상 수상

7인승 출시



[G4렉스턴 구매고객들의 쏟아지는 찬사]

- ★★★★ 이벤트기획자 조영규 “출장이 많은 편이라 안전을 첫번째로 고려했는데, 결론은 초고장력 프레임용 적용한 G4렉스턴이었다”
- ★★★★ 프리랜서 김희규 “탑승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충돌 시 상대편 탑승자의 안전까지 고려되어 설계된 안전한 SUV의 끝판왕”
- ★★★★ 카레이서 이도호 “G4렉스턴의 진짜 매력은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렸을 때 나오는 안정감이다”
- ★★★★ 포토그래퍼 이주희 “G4렉스턴을 보고 2번 감탄했다. 웅장한 외관에서 한번, 그리고 디테일한 인터리어에서 또 한번”

[G4렉스턴 5인승] • 2WD 자동/간: 복합 10.5km/l [도심주행 9.5km/l, 고속도로 11.9km/l] 1배기량 : 2.157cc | 공차중량 : 1999kg | CO2 배출량 : 186g/km | 4등급 • 4WD 자동/간: 복합 10.3km/l [도심주행 9.2km/l, 고속도로 11.5km/l] 1배기량 : 2.157cc | 공차중량 : 2,095kg | CO2 배출량 : 193g/km | 4등급 [G4렉스턴 7인승] • 2WD 자동/간: 복합 10.3km/l [도심주행 9.5km/l, 고속도로 11.9km/l] 1배기량 : 2.157cc | 공차중량 : 2,020kg | CO2 배출량 : 186g/km | 4등급 • 4WD 자동/간: 복합 10.1km/l [도심주행 9.2km/l, 고속도로 11.5km/l] 1배기량 : 2.157cc | 공차중량 : 2,120kg | CO2 배출량 : 193g/km | 4등급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용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쌍용자동차 대리점이 참신하고 유능한 영업인력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아래 해당 판매점에 연락 바랍니다.

구입 문의	• 광주권 : 광주중앙 529-0003	서 광 주 383-3434	광주광신 952-3330	광주첨단 971-0990	광주빛고을 655-4001	광주양산 573-8900
	• 전남권 : 순천중앙 723-7100	목포중앙 277-8000	순 천 745-3666	여 수 683-1800	목포하동 285-7576	광 양 791-0071
	장 흥 863-2600	나 주 334-2727	영 강 473-3456	강 진 433-3100	해 남 537-3100	담 순 383-5811
	완 도 554-4545	여 광 353-9500	보 성 852-2892	서 광 양 761-8900	무 안 454-0099	장 흥 835-5007
	여수구룡 642-1400	함 평 324-3800				담 순 542-5888